



해외

WORLD

보드가야 채식지역 형성 지원

채식 30년 리차드 기어 언론에 호소

볼자로 잘 알려진 헐리웃 스타 리차드 기어(61)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인도 보드가야시를 채식인의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채식주의자로 지낸지 30년이 되는 리차드 기어는 올해 초 인도를 방문해 "보드가야 지역을 채식주의의 구역(zone)으로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차드 기어는 1월 4일 언론을 통해 보드가야 지역 채식주의화(화) 운동에 뜻을 밝히면서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채식하는 삶을 살도록 호소했다.

티베트 수도원 관계자는 "리차드 기어는 1월 4일 보드가야에 와서 달라이 라마를 만난 후 마하보디사원에서 예불을 올리고 5일간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들었다. 달라이 라마를 추종하는 일반 신도들과 다름없이 행동하는 그는 신자들을 지원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사관과 신사' '프리티 우먼' 등으로 잘 알려진 리차드

기어는 1980년대 초 티베트 불교 문화에 흥미를 갖기 시작, 그 후 몇 년간 여러 차례 인도 등지를 방문하며 독실한 불자가 됐다.

또한 리차드 기어는 '티베트 독립'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 티베트 독립 운동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리차드 기어가 방문한 마하보디사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인 보드가야에 있으며 불교 4대 성지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달라이 라마의 신년법회가 열리는 기간 중인 1월 6일 리차드 기어는 수백 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 및 불자들과 보드가야에서 열린 촛불행렬에 참여해 대중에게 채식에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촛불집회는 비영리단체인 '채식주의 사회를 위한 티베트인 모임(Tibetans for Vegetarian Society, 이하 T4VS)'에 의해 기획된 것이다.

이 모임을 이끄는 텐진 쿤가 루딩(Tenzin Kunga Luding)은

"리차드 기어의 채식화 운동 지지 후원이 지역 뿐 아니라 보드가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또 니타시 쿠마르(Nitish Kumar) 비하르 주(州) 총리에게 보드가야를 채식주의의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서를 올리기도 했다.

T4VS는 2006년부터 종교적으로 신성한 지역을 순례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육류도 소비, 판매,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포스터, 팸플릿, 스티커 등을 만들어 캠페인 홍보를 시작해왔다.

루딩은 "T4VS는 사람들에게 비하르주도인 파드나로부터 110km 떨어진 보드가야 지역안에서는 채식만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보드가야가 채식주의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가 된 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냐는 기자

장기기증 2500명 모집할 터

생명나눔 2010 일반인 참여 확대 등 신년계획 발표

"생명나눔은 나와 내 이웃의 일입니다. 2010년은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12일 2010년 신년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일면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6년째 생명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기증은 두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올해는 거리캠페인, 릴레이 형식의 장기기증 등 보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인수는 2020명. 목표보다 500여 명을 초과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명인사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등을 통해 불교계의 장기기증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등 새해에는 장기기증 희망자 2500명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3500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복자 사무총장은 "해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을 시작으로 매달 1명씩 희망등록 릴레이를 이어가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에는 공익광고, 릴레이 장기기증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인터뷰를 통해 장기기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명나눔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조계종 신도등록을 신청 받아 후원금을 모은다.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재적사찰이 없는 단체 특성상 서울 불암사를 본부 실행도량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생명나눔 회원이 조계종 신도로 등록할 경우 지불하는 교무금 1만원 중 반액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금으로 후원하게 된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본부는 우선 이세은, 김병조씨 등 불자연예인을 홍보대사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에 방송할 예정이다. 불자연예인의 스킵에 맞춰

연등축제기간 등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한다.

거리캠페인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횟수로 진행된다. 지난해 △대중 △환자 △정서 △기관 △은라인의 다섯 영역으로 나눠 활동을 펼쳐온 생명나눔은 올해에도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각각 70~80회 실시한다. 또 후원환자들을 위한 음악회, 걷기대회, 세미나, 천도재 등도 꾸준히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은 기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2009년 4월, 70대 노보살이 시력을 잃은 어린 환자를 위해 치료비로 써달라고 기탁했으나 아직 기금이 남아있는 5000만원이 그 예다.

일면 스님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의 각막이식수술비를 지원해 희망을 주고자 한다"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각막이식수술로 시력회복은 가능하나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나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02)734-8050

이냐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여성긴급전화 1366

직지사 복지재단

직지사 복지재단(대표이사 상웅)은 가정폭력·성폭력피해 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재단은 11월 9일 경상북도로부터 '여성긴급전화 경북 1366센터(소장 진원)'를 수탁받아 김천시 대광동에 자리를 잡고 운영 중이다.

경북 1366센터는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위기·긴급상황에서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진원 스님은 "여성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뿐 아니라 관련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냐는 기자

장애인 산행원정대

영주장애인복지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훈)은 2010년 지적장애인의 신체기능강화 및 도전 성공을 위한 산행원정대 '1박 2일 우리는 간다' 사업을 실시한다.

'1박2일 우리는 간다'는 산행등반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신체기능강화, 대인관계강화 및 성취감 획득과 장기적인 재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15~35세의 지적장애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기준에 의해 최종 10명이 산행원정대에 참가할 수 있다.

선발된 원정대원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 △수영, 축구, 기초체력 신체관리 △야외캠핑활동 △지리산, 설악산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은 1월 29일까지 프로그램 전 과정 참가비는 무료다. (054)633-6415

이냐는 기자

"타이거 우즈 기독교 개종하라"

美 폭스뉴스 브릿 흄, 폭스뉴스선데이서

폭스 뉴스(Fox News)의 유명 앵커가 외도로 구설수에 휘말린 타이거 우즈(사지)에게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브릿 흄(Brit Hume)은 1월 3일 시사대담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우즈의 외도는 2010년에도 스포츠계 최대의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즈가 외도로 인해 가족을 잃게 돼 개인적으로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흄은 우즈가 정상의 기량을 되찾으려면 종교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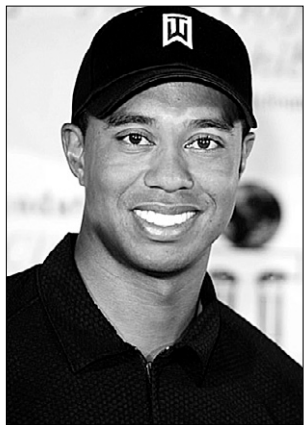
흄은 "타이거 우즈는 골프선수

로서 분명 재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데에는 그의 신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불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신앙에는 기독교의 구축과 용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중의 한 명인 흄은 1998년 아들이 자살한 이후 기독교 신자로 거듭난 유명 방송인이다.

그는 은퇴후 성경공부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이 논란을 빚게 되자 흄은 "불교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발 짝 뒤



로 물러섰다. 타이거 우즈의 어머니는 태국 출신의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으며, 우즈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신도 불교에 심취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냐는 기자

골프 수영 난타 논술등 강좌 '다채'

신흥사 어린이 아카데미 1월 9일~2월 말

속속 신흥사주지 우송)는 겨울방학을 맞아 사교육에서 소외된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육·교양 강좌를 개설했다.

신흥사는 '신흥사 어린이 겨울방학 아카데미'를 열고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골프·수영·풍물, 난타·독서, 논술·미술 교실·클레이(점토를 이용한 창작 교실)·노래교실·풍선아트를 개설했다.

강좌는 2010년 1월 9일~2월 28일 매주 토요일 열리며 교육은 지역 내 전문 강사와 대학 교수들이 맡아 진



신흥사는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수강료 없이 강의를 진행하며 교육기간 동안 무료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

행할 예정이다.

우송 스님은 "신흥사는 각종 문화 체험과 교양,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빈곤층 자녀 및 홀로 방학을 보내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며 "개학 후에도 눈토를 활용해 신흥사 어린이 아카데미를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3)637-7044

이냐는 기자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0 명

◆지원자격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자경문, 염불심기, 불교기초지식)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 (음력 12월 20일)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2) 은사스님 추천서
-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 5) 최종학력 증명서
- 6) 사진(3×4) 3매

◆준비물

• 만의, 장삼, 필기도구

◆버스운행

•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 ~ 4시까지 운행함.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전화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율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율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0 명

◆지원자격

•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방도 가능)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불교교리, 범망경)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 (음력 12월 20일)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 2) 수행이력서
- 3) 은사스님 추천서
-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 7) 사진(4×5) 3매

◆준비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율원
- 전화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묘엄

봉녕사 금강율원 율주묘엄 율원장 대우